

1월 5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신봉준 목사

“(4)영원한 유산에 도전하라”

(행11:19)

19.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행 11:19

■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은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시작하면서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한 주간에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누리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안 돼요 우리가, 거의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지, 세상을 향하고 있지, 육신적인 것을 향하고 있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한 해도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런 환경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하고 평탄하면 좋겠습니까, 산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에는 모든 산들을 길로 만들겠다 말씀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도 원치 않는 이 한 해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앞에 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은, 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14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을 내게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 이것 잘 안 믿어요.

뭔가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말 듣고, 여러분 경험들은 잘 의지하고, 잘 듣고 따라가는데 정말로 내가 하루,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의 시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집중의 시간들, 그게 결국은 우리 인생을 성공 시키는데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갈수록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영적인 문제가운데 성도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시작하면서 정말로 조용

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고요한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시선이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그때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내가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된다 이야기 했어요.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것 축복이죠. 또 이 세상에 주의 나라가 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존재케 하시는데 그 일에, 그 자리에서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죠. 그때 어떻게 하면 그런 축복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고정할 때에 그런 응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죠. ‘영원한 유산을 남겨야 한다.’, 이 일에 도전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어제는 정말로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고, 그에게는 영원한 언약, 그게 우리의 기업인데 그것을 기도로써 누리라 말씀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겠죠. 교회를 다녀도 전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뭔가 복 받기 위해서,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아이를 교회에 보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왜 당신은 교회 다니지 않고 아이를 교회에 보냅니까?’ , 대부분 부모들이 아이를 교회에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는 아이를 보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깐요.

‘왜 아이를 교회 보냅니까?’ 이야기하니까 ‘그나마 교회는 좀 착하지 않느냐? 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 아이가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가만히 보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 들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 다녀왔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나도 교회 다녀왔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힘들면, 어려움 당하면, 또 시험 당하면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말하

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 불신자들이죠.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하는,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피의 제사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모세는 알아들었어요, 이미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바로 왕은 그 피의 제사를 알아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창세기3: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로 알아들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진짜 그 위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세계를 살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절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들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 위에 것을 누려야 하는데 그게 정말로 세계복음화 할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 그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장례식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삶이 있다 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 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응답받았다, 병 고침 받았다, 뭔가 건강 회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난, 또 어려움을 예수 믿어서 해결 받았다? 거기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어려움 때문에, 갈등들 때문에, 병든 부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

분명히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구원 받았다? 예수 잘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내 자녀들이 행복하다? 거기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이 있어요. 다른 삶 그게 뭐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이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 그것과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것.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냐 하면은 그냥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문제 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면 늘 교회 다니면서도 갈등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의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수준에 머물러서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내 자녀 잘 되어야겠다? 내 사업 잘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서 머물러서도 안 돼요, 그 위에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6:6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초반에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더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조용히 산으로 피해서 기도하러 들어가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아, 대단하다!’, 그리고 병 고치는 역사를 보고 대단하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감동받아서 그렇게 들떠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히 가서 따로 말씀했잖아요? 이게 아니다 라는 것,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지 않느냐? 정말로 이게 중요한 것이냐? 조용히 불러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이게 아니다 라는 것,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사실 이 말은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정말로 영적인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고,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전혀 알아들지 못한 부분들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마태복음6:9-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했어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요 주기도문.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누가 알아들겠습니까? 육신적인 것만 나 중심 해서, 세상 중심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다른 것 필요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6: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6:25-32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먹

고 마시고 입는 것, 육신적인 것이죠.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것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는 다른 것 구하지 말라, 이것만 하면 된다. 그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현장에 보내죠. 현장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또 마태복음 12: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불신자들이 알아듣습니까?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사탄 이야기하면 별별 떠는데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듣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는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집중적으로 40일 동안에 말한 것이 바로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전까지는 제자들이 흔들렸습니다, 헛소리도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헛소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에서 집중적으로 한마디로 각인시킨 거죠. 뭐를 각인시켰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 하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힘없고, 배경 없었습니다, 가진 것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껏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심지어 힘 가진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유대인들조차도, 로마조차도 바꾸고, 살릴 수 있는 비밀을 말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데 이걸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아들었죠. 사도행전 19:8절에 감람산 그 사건 속에 없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너무나 잘 알아들었어요. 19: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 하시니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삼서 1:2절에 보면은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여기에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건케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범

사가 그 영적인 힘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보여지고, 심지어 우리의 육신조차도 강건함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어떻게 여러분 불신자들도 사실 성구를 그렇게 써놔요. 내 영혼이 잘 되며 범사에 잘 되고, 표구 해가지고 걸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진짜 알아들겠습니까?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걸 바울이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사도요한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라는 것,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어진다는 것.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말고요, 그리고 구원 받았다, 내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내게 복 주옵소서,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정말로 우리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누려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확인하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있다가 없어지는 언약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입니다. 언약이 우리의 기업이죠.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 하기 전에 이 한 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조금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할 틈도 안 줘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다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영원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어제 아침에는 영원한 작품을 위해서 뭐요? 집중하라 했어요. 그 영원한 작품이 뭐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나와, 나와 관계된 우리의 가정, 산업에,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이다 했어요. 그게 영원한 작품이라 했어요. 그걸 놓고 뭐냐?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집중하라. 실제적으로 나의 것이 되도록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든 그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작품을 놓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 우리 현장에 전달하는 영적인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도전하라! 여러분 영적인 영원한 언약, 영적인 기업이죠. 영적인 작품, 영적 유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요 사실은. 육신적인 것만 관심 있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은,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업인 영적인 언약이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는 것, 이진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나의 기업입니다. 이걸 날마다 누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주어진 것이 바로 일곱 땅대와 여정과 이정표에 대한 부분들, 내용이 땅대와 여정과 이정표로 나오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인본주의 쓰지 말고요, 머리 쓰지 말고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로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업인 영원한 언약 붙잡고, 기도로서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동기 가지지 말고요, 영적인 기업인 언약 붙잡고, 기도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작품을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인 세 절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세 절기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세 절기, 오순절 그 한 단어 속에 여러분 유월절도 있고, 수장절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이 세 절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보장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15개 나라가 모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뜰이죠. 사도행전 2:9-11절에 15개 나라가 모여 있습니다, 세 가지 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도행전 2:42절에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46-47절에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무슨 말입니까? 말씀 듣고 힘을 얻는 금, 토, 일 시대,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작품이 이루어지도록,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도록, 나와 관계된 모든 산업에 이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여기에 뭐예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기업과 영적인 작품을 가지고 이제는 뭐냐? 그것을 영적인 유산으로 남기는 일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여러분이 영적인 기업과 영적인 작품을 가지고 이것이 현장에 전달 되어지도록,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달 되어지도록, 그래서 영적인 유산을 전달하는 이 일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1절에 그리스도, 사도행전 1:3절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 되어지는 이 언약이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전달 되었어요.

영적인 유산을 전달하는 이 일에 도전한 것이죠. 그리

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면 회당에 바울이 이 사실을 전달해요, 이 영적인 유산을 전달했어요. 후대들에게,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영적인 유산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반드시 언약을 전달하고, 영원한 작품을 전달하고, 영적인 유산을 전달하는 이 축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작품을 놓고 집중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일에 기도하며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서 정말로 그렇다 라는 마음이 딱 들면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1:19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일부러 좀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다 생각해서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1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배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데”,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흩어진 자들이 어마어마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못 오는 곳이에요.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못 오는 곳이 바로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스테반의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여기 가면 죽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가면 밥 주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기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쏟아부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밥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병 낫았던 사람도 있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체험했던 사람도 여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엄청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 사실을 체험한 사람도 여기에 있지 않아요. 진짜 세계복음화 할 사람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세계복음화 할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 라는 사실, 스테반의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예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스테반의 환난을 통해 흩어진 자들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올 수 있는 자리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물론 능력도 필요합니다. 병 고침 받는 것 필요합니다. 그것 가지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올 수 없는 자리에요 사실 이 자리는. 안디옥 교회 시작되는, 스테반의 환난을 통해 흩어진 자들이 모인 이 자리는,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만이 올 수 있는 이 자리, 우리 하나교회가 이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불신자도 이해되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으면 되었지 하는 사람, 구원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 정말로 세계복음화, 이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저는 우리교회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들을 맞춤으로 정말로 이 영적인 유산을 여러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 되어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달 되어지는 이 일에 대표적으로 쓰임 받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교회 자료팀

국장 : 김상진 장로 / 팀장 : 조재호 집사(choddq@hanmail.net)
유튜브 채널(대구하나교회) : <https://www.youtube.com/ihanachurch>
다음 카페 : <http://cafe.daum.net/hanarutc>
교회 홈페이지 : <http://www.ihanachurch.com>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35 (우. 42748)